북한, 고기능성 타일접착제 개발

백두산건축연구원, 접착력·접착시간 20% 향상 … 제조원가도 낮아

북한의 대표적인 건축설계 연구기관인 백두산건축연구원이 최근 효능이 높은 타일 접착제를 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월3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백두산건축연구원의 건재연구소 과학자들이 개발한 새로운 타일 접착제는 무기질 고착제에 수용성 수지, 메틸섬유소 계열의 수분보유 성질을 갖는 재료, 기타 첨가제를 혼합해 만들었다.

접착력, 접착시간 등이 종전의 접착제에 비해 20% 이상 향상돼 시공능률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보장한다.

또 많은 인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시공의 질과 타일수명을 늘리고 타일의 표면이 더러워지는 현상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

타일 접착제는 타일의 종류나 타일을 붙일 대상의 재질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모자이크를 포함한 각종 타일 시공에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제조원가도 매우 낮아 실용적이다.

중앙통신은 타일 접착제가 북한 건설현장에서 인기가 매우 높고 외국에서도 환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화학저널 2005/03/07>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